백두산2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91(2002)년 5월 23일

주체사상의 위대한 창시자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주체사상은 그 불패의 진리성과 무한대의 활력으로 해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모든 투쟁기치로 되고 있고 언어와 인종, 지역과 국경을 초월해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대열은 세계적 판도에서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현규씨 모시고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창시자, 이런 주제를 갖고 인류에게 운명을 밝혀주시고 투쟁의 기치를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얘기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는 것처럼 진보적인 사상은 사회역사발전에서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민중은 진보적인 사상에 의해 지도될 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진보적인 사상이라 고해서 그 역할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민중의 지향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고 또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느냐 하는데 따라서 그 역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체사상노작전시관

사회자 : 사상이론의 계급성은 어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과학성이 보장된다는 말이겠는데요. 지난 시기에도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물론 노동자계급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회의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대의 사조들은 그 계급적 한계성으로해서 사회발전에서의 역할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중을 변혁투쟁에로 분기시켜 사회역사발전을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해 창시되는데요.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역사는 노동자계급의 수령들이 변혁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이고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사회자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9세기중엽에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함으로써 투쟁의 길에 등장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입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고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걸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서 레닌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은 이러한 선행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창시된 시대의 기본사상이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셨으며 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실 당시에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자계급의 변혁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민중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었고 제국주의자들은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고 저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민중에 대한 폭압과 약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됐고 오랫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해온 민중이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사회자 : 변혁운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당시의 현실은 새로운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변혁실천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개개 나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갖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걸맞게 풀어나가야했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변혁운동의 복잡성, 간고성으로해서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됐습니다. 조선혁명은 민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변혁운동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걸 더욱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이러한 실천적 요구에 기초해서 창시되었는데요. 변혁은 민중의 힘을 발동해서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민중이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입니다. 민중은 올바른 변혁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조직된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돼야 변혁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 한반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민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해서 변혁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이탈되어 영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 있었고 대중을 단결시킨 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변혁운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이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민중속에 들어가 민중에게 의거해서 투쟁하는 참다운 길을 걸으셨고 변혁의 주인은 민중이고 민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변혁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

사회자 : 당시에 우리 나라에서의 변혁운동은 강대한 일제를 대상해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제와 반봉건민주주의를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었고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변혁운동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자체의 힘으로 변혁운동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해서 독립을 일으켜보려고 망상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다녔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을 떠나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작용하다보니 변혁운동의 앞길은 요원하기만 했던 겁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악결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변혁운동을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해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된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였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변혁투쟁의 실천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어 새로운 변혁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셨네요.

김현규 : 그렇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변혁운동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었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셨던 겁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변혁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으셨으며 이를 일반화하시어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사회자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변혁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완벽한 지도적 지침을 밝혀주고 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있어서 자주를 지향하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투쟁의 장구한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녕 탁월한 사상이론으로 시대의 앞길, 인류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3일~14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창시자
통일운동사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
충성의 정치철학
조국땅에 울린 총소리

통일운동사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

우리 민족의 영원한 하늘이신 **김일성**주석님. 주석님을 생각하면 따뜻한 미소와 더불어 왠지 마음이 아파오는 것 있죠. 조국과 겨레를 너무도 사랑하신 분, 조국과 겨레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신 분, 그러기에 분단된 조국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죠. 정말 주석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손수 한다고, 나라를 통일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복종한다는 통일의 지와 넓은 도량, 숭고한 포옹력으로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끄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셨습니다. 그럼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영도업적에 관해 살펴보죠. 윤정원씨,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우리 민족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가장 뜻깊게 맞았는데요. 지금 이남 민중은 물론 온 겨레는 경애하는 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숭앙심과 경모의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그분께서 통일운동사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영도업적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그럼 어느분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아시겠지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면서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주석은 7천만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요. 해내외의 온 겨레가 터친 이 심장의 외침, 그건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에서 흘러나오는 격정의 분출이고 아울러 주석님은 오늘도 7천만 겨레의 마음속에 계시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한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명 : 7천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8.15광복직후 조국강토가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때부터 조국통일은 최대의 숙원으로 되었는데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의 한결같은 그 염원을 이루어주시려고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바치셨습니다. 하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애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바치셨다고 절절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 격정을 금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주석님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 어느날 조국통일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운명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으며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의 과제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죠. 정말 새기면 새길수록 온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주석님의 위인상에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유진명 :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죠. 자신께서 우리 민중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해 어느 하루도 편히 쉬신 적이 없으셨어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걸으신 길은 몇천몇만리이고 지새우신 날이 그 얼마입니까. 몸소 집필하신 조국통일과 관련한 저작들과 문서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나날 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하시어 민족단합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셨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어 통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놓으셨던 겁니다.

사회자 : 우리 겨레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주석님의 노고와 심혈을 잘 알고 있고 또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럼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광복직후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때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셔서 애국역량들의 단합된 투쟁으로 사대매국세력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두 노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남과 북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셔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통일이냐 분열이냐, 화해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혹한 갈림길에 서게 됐던 1970년대초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목마르게 갈망했죠. 우리 민족은 결단코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분열은 망국의 길이고 통일만이 겨레가 살길이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대와 민족은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물음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시어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윤정원 : 바로 그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정신인 3대원칙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 겨레는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사를 집대성하고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되며 또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통일강령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유진명 : 주석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함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을 마련해주셨거든요. 이 3대헌장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하고 집요한 반통일책동을 과감히 짓부수며 뚜렷한 목표와 방향,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조국통일의 주체를 몸소 마련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진명 : 그렇죠.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거든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건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 조국통일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으로해서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민족대단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석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하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남 민중들이 보고싶다고, 통일이 돼서 함께 모여앉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겨레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윤정원 :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또 그분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덕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하는 숭고한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데 대한 경애하는 주석님의 가르치심은 온 겨레에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심어주셨고 그들 모두를 통일애국의 길로 나서게 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래서 민족의 통일열망은 끝없이 고조되고 조국통일과제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된게 아닙니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걸 합리화 하고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탄생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탁월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크나큰 노고를 바치셨다고 봐지는데요.

유진명 :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확대강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973년초에만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유럽의 90여개 나라들에 특사와 당정부대표들을 파견하셨는데요. 1975년 4월부터 6월에는 몸소 중국과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모로코와 불가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6년동안에는 이북을 방문한 44개 나라 국가수반급대표단을 만나시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도록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셨습니다.

윤정원 : 주석님의 그처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두개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 **, 실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던 미국과 이남의 반통일분자들의 계략적 음모는 그때마다 *******의 길에서 파산을 면치 못했던거죠.

유진명 : 정녕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그 노고와 심혈, 그리고 정력적인 영도에 대해서 그 어떤 글이나 말로 써나 다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각에도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문건을 보아주시고 친히 고귀한 친필존함을 남기신 분이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만대에 기리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좌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3일~14일

충성의 정치철학

정치가에게 있어서 정치철학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정치철학이 없으면 신념이 있고 권위있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돼죠. 아무리 오랜 기간 정치를 했다고 해도 올바른 정치철학이 없으면 그런 정치가를 정치원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런 정치가는 정치사에 기록될만한 업적을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로하는 러시아운동집행위원회 위원장 안뾜로그는 ≪세계에는 제노라하는 정치가들이 많지만 그가운데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진 지도자는 별로 없다. **김정일**동지는 현시대에서 단연 으뜸가는 정치철학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라고 장군님을 칭송했는데요. 오늘 온 겨레와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며 경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분께서 탁월한 정치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정치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장군님의 충성의 정치철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시간에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명시해주신 충성의 정치철학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그럼 그분께서 밝혀주신 충성의 철학의 본질이랄까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됐으면 합니다.

유진명 : 노동자계급의 수령은 변혁의 최고뇌수, 최고영도자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과학적인 변혁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변혁운동을 승리에로 영도하고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들을 변혁투쟁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죠. 그러므로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야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주체형의 인간, 충신이라 말할 수 있겠죠.

변혁운동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지위는 곧 위대한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민중의 지위이고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충성을 다해 실천해나가는 민중의 역할인데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충성의 정치철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변혁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과 방침, 명령,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하는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진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로 명시해주셨잖아요.

유진명 :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신념화된 충실성이고 양심화된 충실성이며 그건 수령이 개척한 변혁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걸 다바쳐 투쟁하는 고결한 품성이고 혁명적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식과 사심이 없는 진실하고 순결한 것이죠.

그리고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되고 생활화된 충실성입니다. 그건 충실성이 혁명적 양심에 의거해서 도덕화돼야 누가 보건 말건 어디서나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될 수 있고 충실성이 생활속에서 체질화될 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여기에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삶을 빛내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룬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어요.

사회자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명시한 충성의 정치철학은 충실성이 민중이 변혁운동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한 담보뿐 아니라 변혁운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원동력이고 근본담보라는 걸 밝혀주고 있죠.

유진명 : 그분께서는 절해고도에서도, 그 어떤 어렵고 곤란한 환경에서도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 살아도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죽겠다고 한 항일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기풍도 그렇고 전후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호소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과 믿음에 산악같이 떨쳐나서 자본주의나라에서 수백년동안 거쳐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불과 14년의 짧은 기간에 수행한 이북 노동자계급이 창조한 천리마의 기적도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의리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명시해주셨는데요. 수령의 사상과 의도,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 바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자기 운명이 있다는 충성의 의리는 이북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혁신의 근본바탕이고 원동력인 겁니다. 충성의 정치철학은 바로 변혁운동의 원동력, 변혁운동에서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을 수령에 대한 민중의 충성의 의리에서 찾고 민중의 충성의 의리에 불을 지펴 변혁운동을 전진시켜나가는 민거백승의 철학이죠. 변혁의 주체의 역할이란 곧 수령에 대한 민중의 충성의 의리의 발현인 겁니다.

사회자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명시하신 충성의 정치철학은 또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심만이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며 민중의 자주위업완성의 담보라는 걸 밝혀주고 있죠.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자계급의 변혁위업은 민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자주위업이고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장기적 위업이거든요.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변혁위업을 완성하려면 혁명의 1세, 2세뿐 아니라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대를 이어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의리를 신념화, 양심화하고 도덕화, 생활화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따라 민중의 자주위업의 개척에 헌신하고 자주위업의 발전에 한생을 바친 변혁운동가들이 그것으로 수령에 대한 의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신뿐 아니라 후대들도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의 명령과 교시를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변혁운동가로 키워 수령의 위업계승완성을 대를 이어 나가도록 해야하죠. 그렇게 할때만이 수령의 전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 수 있고 충성의 의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자 : 후대들을 수령의 위업완성의 참된 주체로 키우는 건 곧 전세대의 변혁운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사명과 의무의 하나이죠.

유진명 : 전세대의 변혁운동가들이 후대들을 수령의 위업완성을 위한 참된 주체로 키울때만이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자주적 주체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될때만이 자주위업을 변함없이 전진시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의 의리는 또한 후계수령에 대한 충성의 의리에서 가장 높이 발양되어야 하는데요. 그건 노동자계급의 변혁위업, 민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는 수령의 위업은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후계수령에 의해서 계승완성되기 때문이죠. 수령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한 후계수령에 대한 충성의 의리는 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한 변혁의 주체의 강화와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 겁니다.

사회자 :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수령의 위업, 민중의 자주위업완성을 담보하는 충성의 정치철학을 명시하시고 그를 변혁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만방에 과시하셨는데요. ≪한민전≫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업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7일, 20일

봉화혁명사적지

두루봉혁명사적지

조국땅에 울린 총소리

무산지구전투에서의 대홍단전적지

80평생 탁월한 영도로 인류사에 영원할 업적을 이룩하시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도의 거장으로 칭송받아오신 **김일성**주석님.

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역사와 한평생 조국과 민족, 인류를 위해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을 되새길수록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무산지구전투 63주년을 맞아 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신 업적에 관해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는 24일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대표적 국내진출의 하나의 하나인 무산지구전투승리 63주년이 되는 날이 아니예요.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시어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신 불멸의 업적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작전의 총적인 지향점은 조국진출과 조국해방이었는데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무산지구전투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과 영도에 의해 조직진행된 역사적인 국내진공작전이었습니다.

사회자 :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이 다 그러했지만 특히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단행하기 전인 1930년대 후반기는 우리 혁명이 일대 수난을 겪고 있던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아니였습니까.

김현규 :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시급히 결속하고 남방으로 진출할 야망밑에 후방의 공고화를 운운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파쇼적 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했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혜산사건을 조작하고 유례없는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백두산서남부와 북부조선일대의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민중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학살했고 좌경모험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열하원정으로 일부 항일연합군부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괴멸됐다는 거짓선전까지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사회자 : 일제의 이같은 발악적인 책동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투쟁의 방책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치고 내외에 자기의 존재를 시위해서 적들의 악선전에 위축된 민중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주는 길밖에 없었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 확대하고 민중을 전민항쟁에 분기시키는데도 국내진출의 또하나의 주요목적이 있었는데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시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결심하시고 그 목적지로 무산지구를 선정하셨습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국내진출의 목적지를 무산지구로 선정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현규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훗날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총소리로 무산의 노동자계급을 각성시키고 함경북도의 노동자, 농민을 각성시키며 온 나라 민중을 항일혁명에로 분기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그 일대에는 일제가 보천보전투후 가장 악질적인 살육무력을 몇배로 증강하고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 소부대도 아니고 대부대가 그처럼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국내에로 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니예요.

김현규 : 그렇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죠. 그분께서는 적들이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있는 무산지구에로 진출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여느 다른 곳을 치는 것보다 몇배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지구의 철강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의 대부대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 지구를 국내진출의 목적지로 선정하셨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대담무쌍한 작전구상에 감동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송지구진공작전노정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규 : 주체28(1939)년 5월 18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청봉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신 다음 건창을 거쳐 베개봉에 이르시어 일행천리전술로 무산지구로 신속히 진출할 대담을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임기웅변하고 대담무쌍한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삼지연을 거쳐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무포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숱한 자금을 들여 닦아놓은 도로를 그 항일유격대가 그것도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였으니 일제놈들은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었겠네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부대를 거느리시고 일행천리전술로 무포에 도착하신 다음 신사동과 신개척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도록 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몸소 경위중대와 8연대를 거느리시고 신사동에 진출하시어 5월 22일 그곳 민중들 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고 전민족이 하나와 같이 반일전선에 굳게 뭉쳐 일제를 반대하는 성전에 힘있게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사회자 :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진출에 당황한 일제는 대병력을 동원해서 발악적으로 추격하지 않았어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적들의 기도를 예리하게 간파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형상 유리한 대홍단벌에서 적들을 소멸할 결심을 하시고 5월 23일 대홍단에 매복진을 치게 하신 다음 적들을 유인해서 원수놈들을 일격에 소탕해 버리셨습니다. 결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진행된 무산지구진공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됐습니다.

사회자 :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조국진군방침과 탁월한 영군술의 빛나는 결실인데요. 무산지구전투 승리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김현규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다고 하셨는데요.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일제의 악랄한 반동공세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철퇴를 내림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했다는데 있고 또 일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군사정치적 타격을 주어 일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대륙침략에 내몰았던 수많은 무력까지 후방안전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국가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벌이신 무산지구전투는 위대한 수령의 영도밑에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하는 군대와 민중은 그 어떤 강적도 쳐부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매우 의의 깊은 전투인데요.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던 겨레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그들을 광복성전에 힘있게 분기시킨 역사적인 무산지

三百餘金日成○團과

咸北警官隊와激戰

應援隊急派包圍陣

무산지구전투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구전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역사에 금문자로 기록되어 후세에 기리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7일, 20일